



9° Capitolo generale 29 giugno-16 luglio 2017

“Donna, ecco tuo figlio”. Il dono profetico della maternità pastorale

생명을 낳기 위해 맺는 관계의 예술

1. 영신수련

6월 29일 저녁부터 7월 3일까지, 바오로 가족과 기념(서원 25, 50,60 주년)성찬례를 거행한 후, 모든 빠스토렐레들은 로마 에우데스에 있는 총원에 모여 제 9차 총회의 공식적인 개막식을 하고, 밀라노 교구의 Gian Battista Rizzi 신부가 지도하는 영신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기도의 분위기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온순하게 경청하도록 내적 자세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성실하게 다양한 선을 엮기 시작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인 만큼, 우리의 총회 참석자들은 지역과 문화가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첫 묵상부터 우리는 친교와 상호증여 안에서 생활한 천상의 삼위일체의 삶의 아름다움을 관상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에 기초한 참된 관계의 웅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성령과 어머니인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개인의 욕구를 주장하는 데로부터 나옴으로써 구속된 인간으로써 참된 정체성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교 안에서 생활한 삶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조직하고, 생명을 낳는 여성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 색실의 조화로운 직조를 통해 원하는 천을 만들기 위해 각 부분들과 함께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 각각의 실을 함께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과 하느님의 눈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피정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올 총회 기간 동안 작업을 위해 잘 준비된 자세를 갖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 집중적 시기를 보낸 후, 7월 4일 화요일 8시 30분 총본부에서 로마교구의 부교구장인 Angelo De Donatis 주교가 집전하는 전례 중에 총회 개막식을 했습니다. 바오로 가족 수도회를 대표하는 성바오로 수도회의 총장 Valdir 신부, 성바오로 딸 수도회 총장 Annamaria Parenzan 수녀, 스승예수의 제자 수도회 총장 Micaela Bonetti 수녀, 사도의 모후 수도회

총장 Sr Marina Beretta 수녀가 함께 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웃 지역 공동체에서 온 몇몇 빠스토렐레들의 참여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형제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 총회의 법적인 조직구성

오전 늦게, 교회 안에서 인류에 봉사하고 참되고 풍요로운 사도직을 살았던 다섯 명의 거룩한 여성들의 이름을 따서 다섯 개의 식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작업 팀을 만든 직후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는 인사말을 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회가 속해 있음을 보다 더 분명하게 살도록, 참석자들이 모든 빠스토렐레들을 대표하여 참석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서 성 도로테아 수녀회 소속인 Teresa Simionato 수녀의 진행으로 규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과 법령, 작업도구, 총회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를 봉사 할 수녀를 선출하는 예비적 활동들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수녀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표인: 가장 연장자와 가장 젊은 수녀를 선출했는데, 연장자는 Adriana Cortellini 수녀이고, 가장 젊은 수녀는 Marylin Delalamon 수녀입니다.

총회 비서: Purisima Tañedo 수녀

전체 총회 참석자 대표: Sandra Pascoalato 수녀와 Angiolina Rossini 수녀

소식을 전하는 비서: 통역 지원을 위한 수녀들의 협력을 받아 Angela Napoli 수녀

-영어: Brenda Balingasa 수녀

-포르투갈어: Suzimara Barbosa 수녀

-스페인어: Luisa Melania Caguana 수녀

-한국어: Teresa An 수녀

첫 시기부터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 찬미를 드리며, 친교와 자애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신뢰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청하도록 합시다.

기도와 축전을 보낸 함께하시는 우리의 이웃들과 분들, 주교, 사제,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는 모든 은인들, 바로 가족의 수사님, 수녀님들, 모든 지역구의 수녀님들과 협력자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친교 안에 머물시다.

총회소식 전달비서, 안젤라 나폴리 수녀